

인문학연구 활성화... 5개대 연구소에 7년간 100억씩

대학가 소식

동국대 홍승기 국제통상학 교수 무역학회 학술대상 수상



동국대학교는 국제통상학과 홍승기 교수(사진)가 지난 3일(사)한국무역학회(회장 전순환)가 발간하는 무역학회지에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 촉진에 관한 연구-국가별 거시적 사회, 경제 변수를 중심으로'라는 우수 논문을 게재해 제1회 학술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재능대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인천재능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12년 최초 인증 후 2015년에 이어 올해까지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인천재능대는 교육기부활동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시설과 인력을 활용, 인천지역 학생들이 서비스 직종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직업소개와 병원환경 체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디자이너 직업소개, 피부관리 강의, 실용사진 및 방송영상 직업소개 프로그램은 100명 이상 참여해 고교생들 사이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기우 총장은 "교육기부인증 갱신을 계기로 대학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과 나눔문화 정착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재능대는 2018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고, 5년 연속 수도권 전문대(가,나,그) 취업률 1위, 특성화 전문대학육성사업, WCC(World Class College)에 선정되는 등 교육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한용수 기자

금성출판사 잉글리시버디 영어교육 취·창업 상담

17일 숙명예술 취업박람회 참가

금성출판사 잉글리시버디는 테솔(TESOL) 교육 전문기관인 숙명예술이 오는 17일 숙명여대 인재관 3층에서 개최하는 '2019 숙명예술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취업정보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잉글리시버디는 금성출판사의 초중등 영어학습브랜드로 이날 행사에서 잉글리시버디 프로그램 소개와 사업장점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경희대·한국외대 등 신규 선정 인문학 후속세대 인재 양성 거점 대학-지역사회 연계 역할 기대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의 인문사회 연구소 한 곳 당 7년간 100억여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9년 상반기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과제는 ▲인문학 국 플러스(HK+ 1유형) 5개 연구소 ▲2019년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533개 과제 ▲학술대회 지원사업 135건으로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국플러스 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연구소가 신청한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희대 인문학연구원(국가전략·융복합 분야) ▲안양대 신학연구소(소외·보호·창의·도전 분야)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해외 지역 분야) ▲경북대 인문학술원·조선

(2019년 인문학 플러스(HK+ 1유형) 선정 연구소)

/자료=교육부

구분	선정연구소	과제명
인문 기초학문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크 연구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재난인문학의 정립
해외지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21세기 문명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소외 보호 창의·도전 국가전략 융복합	안양대 신학연구소	동서교류문헌 연구: 텍스트의 축적, 비교, 연결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4차산업혁명 시대 인간 가치의 정립과 통합의료인문학

대 인문학연구원(인문 기초학문 분야) 등 5개 대학 연구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연구소에는 향후 최대 7년(3+4년) 동안 연간 17억원이 지원돼 인문학 심층 연구가 수행되고, 인문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거점,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지역인문학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희대 인문학연구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가치의 정립과 통합의료인문학'이라는 과제를 수행,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실천적 문제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진행해 인문학의 지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지역 분야 연구소로 선정된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는 '21세기 문명 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과제를, 안양대 신학연구소는 '동서교류문헌 연구: 텍스트의 축적, 비교, 연결'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는 2014개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533개 신규과제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진 연구인력의 연구 의욕 고취와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

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1~3년간 연간 2000만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별도 신설해 지원한다.

창의도전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계약 실행 프로그램인 스마트 계약의 분쟁에 대한 중재 해결방안 연구', '융합 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서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모델 연구'이다.

또 135개 학술단체가 인문사회 분야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선정, 국내 대회는 2000만원 이내, 국제대회는 최대 1억원까지 학술대회 개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사업 지원을 받아 '교육법 제정 70주년, 교육과 법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모색'(대한교육법학회), '신남방지역과 동남아 지역 연구'(한국동남아학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장학재단, 수기·UCC 공모전 시상

장학금 수혜사례 대상자 "혼자가 아니었음을 확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만나며 앞으로 뚜벅뚜벅 함께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친절과 따스한 미소 역시 아직 생생하다."(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수기대상작 '경주마, 나눔에 눈을 뜨다' 중)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지난 7일 한국장학재단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제11회 한국장학재단 수기·UCC 공모전의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 교육부장관상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상장,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 수혜 사례, 멘토링 참여, 연합기숙사 수기, 홍보 UCC 영상 등 총 1104편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대상 12편, 최우수상 13편, 우수상 28편 등 총 53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가운데)이 제11회 수기·UCC 공모전 수상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편의 수기와 UCC가 선정됐다.

힘든 상황에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꿈에 다가갈 수 있었던 이야기와 멘토링·연합기숙사를 통해 경험한 성장과 나눔의 사례들은 추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SNS, 수기집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사례 대상을 받은 서울대 마동한 씨는 "혼자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재단을 통해 함께 달리며 목마른 자신에게 물을 건네주는 사람

들이 있음을 깨달았다"며 "가진 것을 나누고, 세상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해준 한국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이 성장과 나눔의 발판이 됐다는 사례들을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재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장원교육 19일까지 인천·수원 지역 교육박람회 참가

종합교육기업 장원교육은 9일~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9 인천 국제유아교육전', 16일~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수원 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난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장원교육 베스트셀러 '장원한자', '한국사를 인물, 용어, 주제에 따라 정리한 '장원 한국사', 영유아 한글 놀이 학습 '척척 리듬한글'을 비롯해 '어휘나무', '국어랑 독서랑', '아이별 맞춤수학', '책읽는 아이들' 등 영유아 및 초등 학습지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박람회에서 장원교육 부스를 방문하면 학습 브로마이드를 증정한다. 무료 학력진단테스트와 학습상담을 받는 고객들에게는 룰렛게임을 통해 문구류, 양장도서 가운데 1종류를 제공한다. 또 현장에서 입회하면 신형 과목에 따라 그림한자 사전, 공부상, 문구 등의 사은품을 선물한다.

장원교육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장원교육의 대표 교육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 수원지역 교육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장원교육 부스만 방문해도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장원교육은 9일~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9 인천 국제유아교육전', 16일~1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수원 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한다. /장원교육

'월급만으론 쪼들려'... 직장인 절반 "알바하고 싶어"

선호 알바, 카페)극장)사무보조 順

직장인 절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는 카페 알바로 조사됐다.

9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 직장인 1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9.1%는 '하고 싶은 알바(직종)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여성(50.4%)이 남성(46.5%)보다 소폭 많았다.

'하고 싶은 알바직종'에 대해 복수 선택으로 조사한 결과 '카페알바'(32.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카페알바를 선호하는 직장인은 여성(37.9%)이 남성(21.6%)보다 많았고, 20대 직장인(47.5%)에서 특히 많았다.

카페알바에 이어 '영화관 알바'(20.6%), '사무보조'(19.6%), '매장관리/판매'(15.7%), '이벤트/행사스텝'(14.1%)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성별로 남성 직장인들 중 '유튜브 개인채널 운영'(17.6%), '놀이공원

알바'(17.1%)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 직장인은 '쇼핑몰 운영'(12.6%), '편의점알바'(12.0%)를 해보고 싶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인들은 알바를 해보고 싶은 이유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73.0%)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일의 재미를 통해 생활의 활력이 될 것 같아서'(36.5%),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만족감'(30.8%) 등의 이유도 적지 않았다.

/한용수 기자